

## 제39차 자치구 대표도서관장·도서관정책 관련 자치구 과장 연석 회의

- 인사말씀 : 코로나 관련 시 방침 및 본 회의 취지 안내
- 참석자 소개
- 2020 서울시 도서관 정책 공유 : 회의자료 대체
- 현안 및 건의사항 논의

### <○○○ 관장>

(1) 장애인도서관이 민간도서관이라 보니 어려워하고, 이번에 송파가 폐관을 하면서 송파가 점자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됨. 민간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도서관이 열악하니, 복지관 위탁하듯이 권역별로 위탁개념 검토 요청.

(2) 현실적으로 거버넌스 언급하여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수학교의 경우 사서가 없으므로 교육청 및 구립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에 특수학교가 있다면 장애학생을 위한 도서 구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요청드리고 싶음.

사회복지 관점에서 장애 관점이 아닌 도서관 관점에서 장애 인식개선, 서비스 등 지역의 특수학교 등과 협력 프로그램 등 협조 요청드립니다.

(3) 권역별 도서관 고려시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시설 등 접근 개선 필히 검토해주실 것.

### <○○○ 관장>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업은 활성화 및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센티브 등 검토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 관장>

김동복 관장 발언 제안한 3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연구조사에 반영해 정책적 지향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일선의 공공도서관에 요청하신 사항은 지역단위 협력체계가 만들어지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지식정보취약계층 사업이 그러한 지역단위 협력을 고려한 사업임을 주지바람. 권역별 도서관은 지역단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제안한 부분 필히 반영하겠음.

송경진 관장 발언 시구협력사업의 북스타트 지표 반영 퍼센티지를 높였음. 북스타트는 책꾸러미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고 영유아 정보서비스 계기 사업, 실버세대의 자원활동을 지원,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겠으나, 올해까지는 인센티브나 차등지원에 대한 부분은 시기상조라 생각, 보류하고 향후 검토하겠음.

필요시 부구청장 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려 구 단위에서 본 사업이 고민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관장>

북스타트는 끊임이 없이 지속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 등 관련해서 끊임이 있음.  
꾸러미 배부하고 남은 부분이 1분기 분량만큼이 되어야 지속가능할 것으로 계산됨.  
조기배부가 아니더라도, 기준치(10%)를 25% 정도로 높이면 어떨지 제안드림.

<○○○ 관장>

올해 사업 설계시 고민하도록 하겠음.

<○○○ 관장>

(1)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서울시 여러 도서관들이 행한 성과물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마련되었으면 함.  
(2)직원역량강화교육이 국립중앙도서관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이어서, 1박2일 워크숍, 신규사서 워크숍 등(경기도 사례)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면 함.

<○○○ 관장>

사서역량강화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으나, 시급한 사안이 많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진행토록 검토하겠음.

<○○○ 관장>

리모델링 경우 국비만 지원, 시비가 지원안되는 이유를 듣고 싶음.  
연유와 상관없이 시비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면 함.

<○○○ 관장>

자치구에서도 의지를 보여야 시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한 부분임.

<○○○ 관장>

서울시에서 인문진흥기금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도서관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듣고 싶음.

<○○○ 관장>

시장님이 지향하는 바이나 예산확보나 구체적 사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설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음. 구체화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관장>

사서권익개선 취지 관련한 부탁말씀, 도서관계 하나의 맹점으로 시작한 요란한데 끝이 안 좋음.

개약이 안 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면 함.

<○○○ 관장>

모든 일에는 긍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도서관계 여러 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음. 위탁도서관이 많은 서울시 특성이긴 하나 감정노동이 많은 도서관 운영, 도서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과업이며, 본 과업이 문체부 등 국가 단위까지 확산이 되어서 정책으로 검토되기를 바람.

<○○○ 관장>

서울시 교육청에 개관연장사업에 관해 민원 등 상황 알고 싶음.

국비, 시비 등 중단될 경우, 구 단위에서 준비상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 등 정보를 파악하고자 함.

<○○○ 팀장>

자료실 10시, 열람실 11시까지 운영하였음.

사회일자리 사업에서 정부에서 제외되면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사항

자료실 8시, 열람실 23시까지 운영함.

민원이 크게 일지 않음. 내부적으로 스마트도서관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움.

<○○○ 관장>

개관시간연장사업은 서비스가 주목적이 아닌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된 것.

어떤 정권이든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상. 다만 형태는 변형될 수 있을 것.

지역별로 효과분석을 해서 근거데이터를 가지고 제시고, 지원이 끊기거나 했을 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하실 것.

<○○○ 관장>

개관시간연장사업은 불안정성, 영세성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

개관시간연장사업은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이 적용됨.

<○○○ 관장>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생활임금,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은 맞지 않음. 내용파악은 해보겠음.

지역의 다른 관장들과도 정보 공유 바라며, 관장회의 연중일정을 고정하였으니, 협조바람.